

여름 휴가철 꼭 가봐야 할 경남 추천여행지

- ①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피서관광지
 - 구조라·학동 몽돌 해수욕장, 양산 내원사 계곡 등 16곳
- ② 가족단위 체험관광 코스
 - 통도(아쿠아) 환타지아 등 5곳
- ③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힐링관광지
 - 갈모봉 삼림욕장, 해인사 소리길 등 6곳
- ④ 공연이 있는 여름 축제
 - 『바다로 세계로』 축제, 합천 황강레포츠 등 4건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목 차

구 분	목 록	page
피서관광지 (16곳)	① 호수같은 조용한 분위기,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	1
	② 거제 학동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2
	③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 해수욕장	3
	④ 통영 비진도 산호빛 해수욕장	6
	수 내원사 계곡(경남 양산)	7
	⑥ 원동 배내골 계곡	8
	⑦ 대원사 계곡(경남 산청)	9
	⑧ 대청계곡(김해)	10
	⑨ 장척계곡(김해)	10
	⑩ 송정 숲(산청)	11
	⑪ 대포 숲(산청)	11
	⑫ 홍룡폭포(양산)	12
	⑬ 양산 대운산 자연휴양림	12
	⑭ 저도야.. 여름을 부탁해!!	13
	⑮ 올여름 무더위 하동계곡에서 날려 버려!	15
	⑯ 연화산(고성)	16
가족단위 체험코스 (5곳)	① 여름 무더위, 산청 경호강에서 한방에 날려보자	17
	② 개천 나동 무지돌이 마을(고성)	18
	③ 통도(아쿠아)환타지아	19
	④ 친환경 생태연꽃과 함께하는 비실체험마을(진주)	20
	수 고현 어촌 체험마을(창원)	21
힐링 관광지 (6곳)	① 갈모산 삼림욕장(고성)	22
	② 옥천사 템플스테이(고성)	22
	③ 거창 힐링여행	23
	④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 동의보감촌	28
	수 힐링여행~ 마금산 온천에 가다	30
	⑥ 자연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해인사 소리길	31
여름축제 (4곳)	① 제21회 해양 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34
	② 2014 사천 세계타악 축제	37
	③ 422주년 제53회 통영한산대첩 축제	41
	④ 2014 합천 황강 레포츠 축제	44

여름 휴가철 경남 피서관광지 특집 보도자료

1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피서관광지(산, 계곡, 해수욕장)

① 호수 같은 조용한 분위기,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



- 소재지 :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구조라리 500-1)
- 개장기간 : 2014. 7. 1 ~ 8. 24
- 상세설명 : 구조라 해수욕장은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물속까지 들여다보일 만큼 맑고 깨끗한 바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기도 편리한 해수욕장이다. 한국전쟁 후 포로수용소가 거제에 설치되면서부터 미군들에 의해 해수욕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970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백사장의 길이는 1.1km, 폭은 30m이며 모래가 부드럽고 수심이 완만하며 수온도 적당하여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동쪽으로 망산, 서쪽으로 수정봉, 앞쪽 바다에 안섬, 서쪽 바다에 윤돌섬이 자리 잡고 있어 경치가 수려하다. 내륙형 해안지대로 호수같이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생선회를 맛볼 수 있으며 멸치, 미역 등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조선 중기에 축성한 구조라 성지와 내도, 외도, 해금강 등 이름난 명승지를 유람선을 이용하여 관광할 수 있다.
- 교통정보
 - 서울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 동통영 IC → 국도14호선 → 거제
 - 부산 : 구마고속도로 → 마산 IC → 서마산 → 국도14호선 → 고성 → 통영 → 거제
 - 광주(전남) : 남해고속도로 → 광양 → 진주분기점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 통영 IC → 국도14호선 → 거제

② 거제 학동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 소 재 지 : 거제시 동부면 학동5길 (학동리)

● 개장기간 : 2014. 7. 1 ~ 8. 24

● 상세설명

파도에 반짝이는 검은 몽돌의 여운에 빠져 보세요 !

거제도에는 몽돌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다. 능소몽돌해수욕장, 함목몽돌해변, 여차몽돌해변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 중에서 검은 몽돌로 유명한 곳이 학동몽돌해수욕장이다. 학동은 학이 날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학동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쪽 들어가고 양쪽으로 불쭙 튀어나온 구렁이 마치 학의 모습을 닮아 있다.

학동몽돌해수욕장은 길이 약 1.2km, 폭 50m, 면적 3만km²에 이른다. 그 너른 해변에 몽돌이 째~악 깔려 있다.

몽돌해변을 즐기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차 안에서 '아 이런 해변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으로 제일 아랫길이다. 차에서 내려 몽돌해변을 저벅저벅 걸어보는 것이 두 번째다. 이런 여행자들은 대개 10분 이상을 몽돌해변에서 머물지 않는다. 폭 50m 길을 걸어 바닷물 가까이 갔다가는 돌아서서 그냥 가버린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는 몽돌해수욕장 갔다 왔다"고 말한다. 물론 몽돌해변에 갔었겠지만, 봤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음은 몽돌해변의 멋진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많지 않다. 신발을 벗고 몽돌해변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몽돌해변을 봤다고 해도 될 성 싶다. 실제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몽돌을 만지작만지작 하며 걸어야 몽돌해변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다. 발바닥 전체에서 느끼는 몽돌은 계절마다 느낌이 다르다. 여름에는 정열, 겨울에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인생이야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한때

정열적이었던 마음이 냉혹한 현실에 몸부림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이 몽돌 해변에서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몽돌을 밟을 때 지압효과도 있어 건강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눈을 감고 바다의 오케스트라에 귀 기울이다

몽돌 해변을 즐기는 마지막 방법은 첼퍼덕 주저앉아 몽돌이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소리는 쉼썩 쉼썩 하는 듯하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키질하는 소리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철 지난 매미 울음소리 같다고도 한다. 어쨌든 바람과 파도와 몽돌이 한데 어우러져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바닷가를 온통 휘젓고 다니는 소리는 가히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명상의 시간을 던져준다.

다른 해수욕장이야 햇볕 쨍쨍 내리쬐일 때 가보기를 권하지만 이곳 학동 몽돌해수욕장은 바람이 많은 날 가보기를 권한다. 바람이 없는 날은 몽돌 구르는 소리가 바닷가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바람이 많은 날에는 몽돌 구르는 소리가 사람의 가슴까지 밀고 들어와 아픈 가슴을 더욱 쓰리게 후벼 판다. 그렇게 한 시간쯤 앉아 있으면 가슴이 몽돌소리로 가득차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몽돌 해변을 보는 가장 윗길은 달 밝은 밤에, 혼자서, 바람 많은 날 몽돌 바닷가에서 쭈그려 앉아 바다를 보는 것이다. '본다' 는 것은 듣는 것을 막는다. 낮의 몽돌 해변이 앞바다 섬들과 어우러져 풍경으로 다가온다면 밤의 몽돌 해변은 온전히 소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안용태 시인은 몽돌이라는 시에서, 물론 다른 바닷가에서 본 몽돌이지만, “그렇게 치고도 지치지 않는/ 너도 너지만/ 그렇게 맞고도 물러서지 않는/ 너는 또 무어냐”며 “물과 파도가 힘 겨루고 있을 때/ 검은 몽돌 알몸으로 뒹굴며/ 맨살 찢겨진 잡목 뿌리 / 감싸주고 있었다”고 노래한다. 몽돌은 가장 원초적인 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낮은 곳은 없기에 학동몽돌해변에서는 겸손을 배우고, 자기를 성찰하고, 맞고도 물러서지 않는 힘을 얻는 것이다.

● 교통정보

- 거제대교 → 사등 사곡삼거리 → 거제 → 동부 →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
- 거제대교 → 사등 사곡삼거리 → 신현읍 → 문동 → 동부(학동) →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
- 옥포(여객선터미널) → 대우조선소 → 두모마을 → 지세포 → 와현해수욕장 → 구조라해수욕장 →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
- 장승포(여객선터미널) → 옥림 → 지세포 → 와현해수욕장 → 구조라해수욕장 →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

③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 해수욕장



- 소재지 :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0-3 (상주리 1136-1번지)
- 개장기간 : 2014. 7. 10 ~ 8. 23
- 상세설명 : 남해에서 가장 빼어난 풍경을 가진 해수욕장으로(백사장 길이 2km, 폭 120m) 부채꼴 모양의 해안 백사장, 눈앞에 펼쳐진 작은 섬들은 바다를 호수 모양으로 감싸고 있으며 파도가 잔잔하고 수온이 따뜻하여 가족단위의 피서지로 일품이다.

해수욕장이란 이름값을 하려면 모래와 숲과 맑은 바다를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한 두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뿐인데, 상주해수욕장은 이 세가지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이다. 더구나 전국 3대 기도도량 중의 하나인 보리암과 절경을 자랑하는 금산을 하루 코스로 다녀올 수 있다. 해마다 여름 한철만 해도 1백여만명의 손님이 찾는다는 상주은모래비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그러나 여름철 관광지는 이젠 옛말이다. 겨울에는 전지훈련을 오는 운동선수들로 백사장이 붐빈다. 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만 갖추었다면 오히려 전지훈련장으로 더 각광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봄, 가을에도 수련활동을 갖는 대학생들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4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상주면 상주마을 앞바다는 천연적인 해수욕장. 뒤편으로 한폭의 병풍처럼 소금강산이라고 일컫는 남해금산의 절경이 둘러싸고 있다. 금산 양편으로 쪽 뻗어내린 산세는 두팔을 벌리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반월형을 그려 2km에 이르는 백사장의 모래는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부드러워, 주단 위를 걷는 감미로운 감촉을 느끼게 해 준다. 백사장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송림 또한 상주의 자랑이다. 잔잔한 물결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송림이다. 바다밑은 기복이 없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수심은 채 한길도 안될 정도로 얕기 때문에 어린이들 물놀이에도 알맞다. 가까운 곳에 강물이나 다른 바다공해에 오염될 것도 없어 바다 밑바닥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물이 맑고 깨끗하다.

백사장은 48,400평이고, 송림면적은 2,700평, 해수욕이 아니라도 송림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땀을 식힐 수 있다. 바다수온은 23℃~25℃, 수심은 0.5m~4m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관광지이다. 해변에서 마주 보는 나무섬과 돌섬이 남해 먼 바다의 거센 파도를 달래듯 해안을 막고 서 있는데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상주에 저녁 늦게 도착했다면 이곳에서 숙박을 한 뒤, 새벽에 금산에 올라 일출의 장관을 보고, 금산 38경을 두루두루 돌아본 뒤, 시원한 상주해수욕장의 깨끗한 바닷물에서 해수욕을 즐기거나 해변을 산책하면 최상의 여행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곳을 찾는 100만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 남해군은 해마다 시설을 보완하여 사계절 휴양지로 만들고 있다.

● 교통정보

- 남해읍에서 승용차로 상주까지 20분 동안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는 차안에서 산림욕을 즐기는 기분이 들 정도로 상큼하다. 남해읍에서 상주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해서 국도19호선을 따라 이동면을 거쳐 상주로 간다. 버스는 남해읍에서 상주까지 1시간 간격으로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창선·삼천포대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삼동과 미조해안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송정해수욕장을 지나 오면 되고 시간은 창선·삼천포대교에서 50분 정도 소요된다

④ 통영 비진도 산호빛 해수욕장



- 소재지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 개장기간 : 2014. 7. 4 ~ 8. 20
- 상세설명 : 통영항에서 13km떨어진 한산면 비진리 외항마을에 위치한 비진도 산호빛 해변은 해안선의 길이가 550m 나 되는 천연백사장이다. 백사장 길게 뻗어나가다 잘록해 지면서 개미허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래가 부드럽고 수심이 얕은데다 수온이 알맞아 여름철 휴양지로는 최적지이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감싸고 도처에 낚시터가 있어 해수욕과 낚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해변 언덕에는 수령 100년 이상의 해송 수십 그루가 시원한 숲을 이루며 운치를 더해 주고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 교통정보
 - 항공 : 사천(김해)도착→사천버스터미널→통영버스터미널→통영 여객선터미널
배편이용→ 비진도 해변 도착
 - 철도 : 마산역 도착→마산남부터미널→통영버스터미널 하차
→통영 여객선터미널 선편이용→ 비진도 해변 도착
 - 자가용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통영 IC→통영시청→통영 여객선터미널 선편이용
→ 비진도 해변 도착
 - 버스 : 통영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이용 →통영 여객선터미널 선편이용→
비진도 해변 도착
- 여객선 요금 및 준비물
 - 운임 : 8,250원(※하계 특별 수송기간에는 10% 할증)
 - 준비물 : 승선 시 신분증,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등본 지참

수 내원사 계곡(경남 양산)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 상세설명 : 비구니 스님의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내원사가 소재하며 주변에 노전암, 성불암, 금봉암, 안적암, 조계암 등 많은 암자가 울창한 숲과 기암 절벽사이에 날아갈 듯 자리 잡고 있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또한 내원사쪽과 노전암쪽 2개의 계곡은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할 정도로 깊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돌부리를 울리며 흐르는 그 광경은 인간의 온갖 번뇌와 망상을 한숨에 잊게 할 정도로 신비스럽다. 여름에는 피서객이 봄, 가을, 겨울에는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고 이곳 산에서 채취하는 도토리로 만든 묵은 맛도 좋을 뿐 아니라 건강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교통정보

-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I.C ->35번국도->1025 지방도->내원사
- 버스
 -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언양방면 완행버스 이용(10분간격)->내원사 입구 하차, 매표소까지 도보로 30분 소요. * 내원사 입장료(2,000원)
 - 부산 범어사 → 12, 13번 버스 이용 → 내원사 입구 하차, 매표소까지 도보로 30분 소요

⑥ 원동 배내골 계곡(경남 양산)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 선리
- 상세설명 : 영남알프스라고 하는 가지산 고봉들이 감싸고 있으며,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다. 맑은 계곡 옆으로 야생 배나무가 많이 자란다 하여 이천동(梨川洞), 우리말로 배내골 이라한다. 이 곳은 아직도 태고의 비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봄이면 고로쇠 수액이 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물을 먹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통도사, 내원사, 홍룡폭포와 함께 1일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밀양댐건설로 인하여 배내골 전역이 상수도보호구역지정(2000.11)과 아울러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해제(2001. 3) 됨에 따라 물놀이,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있다.
- 교통정보
 - 대중교통 : 양산시의버스터미널→원동면 소재지→마을버스 (30분)→배내골
 - 철 도 : 부산역(부전역)→구포→원동역→마을버스(30분)→ 배내골
 - 승용차 : 양산→물금→원동→배내골
 - 승용차 : 울산→석남사→배내골

7 대원사 계곡(경남 산청)



●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 상세설명

기암괴석을 감도는 계곡의 옥류소리, 울창한 송림과 활엽수림을 스치는 바람소리, 산새들의 우짖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대자연의 합창을 들을 수 있는 계곡이 대원사계곡이다.

30여 리에 이르는 대원사계곡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중봉과 하봉을 거쳐 쑥밭재와 새재, 왕등재, 밤머리재로 해서 웅석봉으로 이어지는 산자락 곳곳에서 발원한 계류가 암석을 다듬으며 흘러내린다. 조그만 샘에서 출발한 물길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면서 신발골과 조개골, 밤발골로 모여들어 새재와 외곡마을을 지나면서는 수량을 더해 대원사가 있는 유평리에서부터 청정 비구니가 독경으로 세상을 깨우듯 사시사철 쉽없이 흐르는 물소리로 깊은 산중의 정적을 깨운다.

이젠 자동차로 한달음에 계곡의 끝인 새재마을까지 오를 수 있으니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계곡이야 여름이면 더위를 씻어 주는 피서지이고, 가을이면 단풍구경 가는 길 일뿐이다. 계류의 물소리와 바람이 흔들고 가는 나뭇가지의 몸짓에 한많은 역사의 넋풀이를 보는 발걸음이 있다면 옛 화전밭에서 나는 유평 꿀사과의 향기도 입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계곡 옆 아무 곳에서나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지정된 곳에서만 야영이 가능한데, 계곡 들머리 주차장 인근에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다.

⑧ 대청계곡(경남 김해)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설명

장유대청계곡은 해발 743m의 불모산 용지봉 준령에서 흘러내리는 6km의 긴 계곡으로 산림이 울창하고 맑은 물이 폭포를 이루는 등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수려한 경관과 물도 좋지만 주변 음식점의 오리, 닭백숙의 맛이 뛰어나 먹거리 관광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은 편이고 용지봉까지 등산로가 잘 정리 되어 있다.

계곡 위쪽 장유암에는 한국 최초로 불법을 전파했다고 전해지는 가락구 수로왕의 처남 장유화상의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장유화상사리탑이 있다.

⑨ 장척계곡(경남 김해)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설명

김해시의 명산 신어산 자락에 위치한 상동장척계곡은 울창한 산림과 큰 암석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한여름이라도 함부로 발을 담글 수 없을 만큼 물이 차고 맑다.

시골의 정서를 느끼면서 한가로이 산을 오르고 계곡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동반 휴식처로 이름이 나 있으며 주변에는 토종닭 백숙, 꿩오리 등의 맛 좋은 음식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10 송정 숲(경남 산청군)



- 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천888번지 일대
- 소개(면적 : 43,500㎡)

송정숲은 삼장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로서 모래땅인 송정숲은 배수가 잘되는 모래땅이어서 캠핑장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리고 숲 앞쪽의 덕천강 물길을 막아 놓은 보(滯)는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딱 좋을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는 천연풀장이다. 송정숲에는 화장실이나 급수대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나무다리 건너편의 국도변에는 주차장, 민박집, 모텔, 식당, 상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점도 이곳 송정숲의 매력이다.

11 대포 숲(경남 산청군)



- 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천644번지 일대
- 소개(면적 : 28,700㎡)

대포숲은 삼장면 소재지인 내원사와 대원사 계곡의 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이다. 두 계류가 만나는 곳에 둥글게 퍼져 있는 대포숲은 적송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시리듯 차갑고, 맑은 물가에 울창한 숲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서 여름이면 늘 피서객들로 붐빈다. 대포숲 앞의 찾길을 조금만 거슬러 오르면 내원사에 당도할 수 있다.

12 홍룡폭포(경남 양산)



● 소재지 :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1번지 일원

● 상세설명

가지산 도립공원내의 원효산 골짜기의 계곡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홍룡폭포이다. 홍룡폭포는 보기 드물게 상.중.하 3단 구조로 되어 있어 물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물보라가 사방으로 퍼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더불어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이미지를 자아내며, 깎아세운 듯한 바위와 떨어지는 물보라의 풍광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폭포아래는 홍룡사 라는 아담한 사찰이 위치해 있다

● 교통정보

-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양산나들목→통도사 방면 35번 국도→ 대석마을→동양주유소 앞 우회전→대성마을 입구

13 양산 대운산자연 휴양림



● 소재지 : 양산시 탑골길 208-124(용당동)

● 전화 : 055-379-8670

● 홈페이지 : <http://dwhuyang.yssisul.or.kr>

● 상세설명

탑골(일명 탑지골)은 대운산 서북쪽 자락에 위치하여 깊고, 웅장하면서도 물이 맑고 그 주변 분위기가 새와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깊은 계곡 산사의 분위기를 자아낼 만큼 고요한 곳이다. 이곳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회의실,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 시설현황

- 숙 소 : 숲속의 집(13동), 산림휴양관(5실)

- 회의실 : 대회의실(36명), 소회의실(12명)

- 기 타 : 잔디광장, 테크로드, 야영장 등

● 교통정보

- 부산, 울산에서 7호 국도따라 30~40분 거리

14 저도야... 여름을 부탁해 !!



저도연륙교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리와 저도를 잇는 연륙교로 사랑을 맺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 주황빛 철교다. 1987년8월 길이170m, 폭3m의 철제구조로 처음 가설되었으며 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콰이강의 다리”에서 나온 짚자나부리의 다리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콰이강의 다리”라는 애칭이 붙었다. 처음가는 사람은 손에 땀을 쥐고 걸어야 할 만큼 폭이좁지만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보면 끝없이 펼쳐진 바다경관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철교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2년 새 저도연륙교 공사가 시작되어 2004년 길이 182m, 폭 13m 높이13.5m 왕복2차로의 도로와 인도를 갖춘 새 저도연륙교를

개통했다. 마산의 시조인 팽이갈매기를 형상화해 마산을 상징하면서 광케이블 조명을 설치해 시간별·계절별 여러 가지색의 야경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연륙교의 야경을 보기위해 가족, 연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저도비치로드

저도연륙교와 구산면 일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길로 섬 가운데 우뚝 솟은 용두산(해발 200m)은 가볍게 등산하기 좋으며 해안선을 따라 남해안의 경관을 보며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트레킹코스다.

▶ 단거리코스(3.7km, 1시간 20분 소요)

주차장(1.5km, 25분)→제1전망대(0.8km, 15분)→제2전망대(0.3km, 10분)→사각정자(0.3km, 10분)→코스분기점(0.2km, 5분)→코스합류점(0.6km, 15분)→하포길

▶ 완주코스(6.6km, 2시간 50분 소요)

주차장(1.5km, 25분)→제1전망대(0.8km, 15분)→제2전망대(0.3km, 10분)→사각정자(0.3km, 10분)→코스분기점(1.5km, 40분)→바다구경길(0.35km, 30분)→정상가는길(1.25km, 25분)→코스합류점(0.6km, 15분)→하포길

● 주변관광지

해양드라마세트장, 구복예술촌

● 찾아오시는 길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IC→ 마산방면좌회전(함마대로)→ 현동교차로→ 춘담식물원→ 반동리 →구남중학교 →망향정 →저도연륙교 →하포마을(구복리)주차장

● 맛집

창포해물칼국수(055.271.8866)

다리와 다리사이 횃집(055.221.6858)

● 숙박

저도 대도횃집(민박) (055.221.9666)

15 올여름 무더위 하동계곡에서 날려 버려 !

경남 하동군, 청학동· 화개천· 의신 등 물 맑은 지리산 계곡 수두룩

설 명	사 진
<p>◇ 청학동 계곡 = 지리산 서쪽능선 해발 850m에 위치한 청학동 삼성궁에서 회동계곡 물이 합류하는 횡천면 삼거리 구간의 50리(약 12.5km)에 걸쳐 있다.</p> <p>경치는 횡천에서 청학동으로 거슬러 오를수록 더 절경이다. 계곡 좌우로 둘러져 있는 울창한 숲과 깎아 세운 듯한 기암괴석, 맑은 물이 곳곳에 늪과 못을 이뤄 진경을 보여준다.</p> <p>횡천에서 20리를 오르면 청암면 평촌이 한쪽의 그림 속에 나타난다. 깎아지른 산들이 멀리 뒷걸음질한 속에 넓은 분지가 시원하게 펼쳐지면서 계곡은 느린 걸음으로 산 밑을 돌아 하동호로 이어진다.</p>	
<p>◇ 화개천 계곡 =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이 서려있는 화개동천의 화개천 계곡은 섬진강 본류와 합류하는 화개장터에서 의신마을까지 16km에 이른다.</p> <p>수많은 역사와 수려한 자연, 아자방의 칠불사와 범패의 본고장 쌍계사, 그리고 명승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p> <p>봄이면 화려한 꽃 잔치를 벌이는 십리벚꽃길을 따라 오르면 야생차나무의 파란 잎이 돌 틈에 솟아오르고, 천년의 역사 속에 죽로차 향이 코끝을 스친다. 냇물 소리 요란한 깊은 계곡 언저리의 푸른 숲은 온통 차밭이다.</p> <p>유리알처럼 투명한 계곡 물은 영접의 세월 속에 닳고 닳은 자갈과 몽실한 바위, 원시림이 한데 어우러져 발길 닿은 곳마다 절경 아닌 곳이 없다.</p>	

◇ **대성·의신 계곡** = 대성계곡은 화개장터에서 8km 거리에 있는 신흥마을에서 의신 상정까지 8km에 이르는 계곡이다.

옛날부터 보기 드문 기도처로 못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성골을 지리산 남부 능선의 물이 모여든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화개동천 계곡 중 가장 길다.

울창한 숲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철철 흐르는 찬 계곡에 두발을 담그면 세상의 시름이 사라져 그야말로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그곳에서 상류로 의신마을까지가 의신계곡이다. 마을 앞쪽으로 흐르는 계곡은 암반과 숲이 많아 해마다 여름철이면 많은 도시민이 찾아 무더위를 식힌다.



16 연화산(경남 고성군)



○ 한국의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연화산은 울창한 숲과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다. 선유, 옥녀, 탄금 등 10개의 산봉우리가 심산유곡의 형상을 이루고, 계곡에는 청류옥수가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연화팔경의 절경지 등이 자연경관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연화산 내에는 신라 천년의 고찰인 옥천사(입장료 유료)와 청련암, 백련암, 연대암 등 3개의 암자 등이 있다.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산 57-1

※ 계곡 소재지 : 개천면 옥천로 1011 연화쉼터가든 옆

○ 입장료(옥천사) : 어른 1,300원/ 청소년·군인 1,000원/어린이 700원

○ 문의처 : 양산시 녹지공원과(☎055-670-2663) 및 옥천사(☎055-672-0100)

2 가족단위 체험 관광코스(농촌체험 등)

① 여름 무더위, 산청 경호강에서 한방에 날려보자!



무더운 여름, 물이 있고 급류가 있는 곳이면 스피드와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래프팅’ 래프팅은 아름다운 산과 강에서 굽이치는 급류를 뚫고 다함께 힘을 모아 노를 저어 나가면 건강에 더없이 좋을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인내심까지 기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여름 레포츠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청은 래프팅 천국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 지리산과 인접한 산청군 경호강이 래프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

지리산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흘러 만들어진 경호강, 수많은 사람들이 산청 경호강을 찾아, 맑고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래프팅을 통해 스피드와 스릴, 협동심과 인내심 등 값진 추억을 만들어 간다.

풍부한 수량과 빠른 유속,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래프팅 최적지임을 자랑하는 ‘산청 경호강 래프팅’은 산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스릴을 선물한다. 산청 경호강은 시즌 내내 풍부한 수량과 천연기념물 쏘가리와 껍지 등이 서식하는 1급수의 맑고 깨끗한 수질, 구간마다 유속의 완급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수상유람의 여유와 래프팅 최적의 스피드, 스릴까지 만끽할 수 있다.

‘거울같이 맑은 호수’라는 뜻을 가진 경호강은 넓은 강폭과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현인달사(賢人達士)와 시인, 풍류객이 남긴 시와 글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곳이다.

경호강의 래프팅 코스는 산청읍 래프팅 승선장(래프팅 타운)~용소~자신까지 5km 구간, 승선장~용소~새고개~어천교 8km구간, 승선장~용소~새고개~경호5교 10km구간 등이 있으며, 코스마다 뛰어난 절경과 빠른 유속으로 모험적인 래프팅을 즐길 수 있다.

래프팅은 다른 수상스포츠에 비해 협동심을 필요로 하며, 개인의 능력을 조직의 힘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워 볼 수 있는 화합의 스포츠이기도 하다.

급류가 형성되는 곳에서의 짜릿한 스릴! 완만한 물위에서는 수상 서바이벌과 차전 놀이, 수상다이빙, 팀 파워 게임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래프팅의 매력을 배로 느껴 볼 수 있다.

래프팅은 유산소 운동으로 전신의 큰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케 해 운동효과가 높으며, 숙련된 전문 가이드를 동승하고 보호장비를 완벽히 착용하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초보자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경호강 래프팅은 ‘산청’의 천연 자연자원을 잘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산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산청 경호강 래프팅은 성수기에는 1~2개월 전부터 예약이 들어오고, 그 명성에 맞게 래프팅 업체만 30여개, 타 지역에서 모여드는 래프팅 가이드만도 500여명이나 될 정도이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산청 경호강’을 찾아 래프팅의 스릴을 만끽하고, 무더위도 한방에 날려보자!

② 개천 나동 무지돌이마을(경남고성군)



- 2006년 개천면 나선리 나동과 수동마을에 조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물 좋고 공기 좋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임야가 155ha로 고성군 내 자연부락으로서는 가장 큰 마을로 농약을 쓰지 않는 생명환경농법의 논농사 외에도 울금, 수세미 등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 소재지 : 개천면 나선길 81-9(나선리)
- 체험프로그램
 - 당일프로그램 : 계절별 체험학습(1~2가지) 및 전통놀이(1~2가지)
 - 1박2일프로그램 : 계절별 전통놀이와 야외 체험학습, 밭일 체험
 - 자유체험 : 놀이, 만들기, 관찰, 농가, 농사, 개울체험 등 원하는 체험 선택

○ 비 용

- 당일프로그램 : 문의

- 1박2일프로그램 : 체험관1박(4인기준, 취사가능) 5만원

농가민박1박(4인기준, 취사불가능) 3만원

- 자유체험 : 놀이, 관찰, 농가체험 3천원, 만들기, 개울체험 5천원

※ 농사체험은 시세에 따라 가격 변동

○ 숙박시설 여부 : 여(사전문의)

○ 홈페이지 : <http://www.muji farm.co.kr>

○ 문 의 처 : 무지돌이마을☎010-8772-0152)

③ 통도(아쿠아) 환타지아(경남 양산시)



지난 2007년 개장한 여름철 물놀이 종합시설인 양산의 통도아쿠아환타지아가 가족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통도 IC, KTX울산역과 가까운 데다 통도사와 영남알프스 등산 코스가 인접해 있고 환타지아 콘도까지 갖춰 체류형 종합리조트의 격을 더해주고 있다.

3만4000㎡ 규모의 아쿠아환타지아는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의 인공 비치에 각종 테마풀과 슬라이드 등 최신식 물놀이 시설이 가득하다

주요 시설로는 계곡형 파도시설로 급류에 떠밀려 내려가는 스릴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토렌토 리버, 국내 최장 길이의 레이싱 슬라이드, 급경사인 스피드 슬라이드, 소용돌이의 프로 보울 슬라이드 등 짜릿함과 시원함을 주는 시설들이 즐비하다.

1만㎡ 규모의 실내위터파크에는 온천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노천스파, 히노키탕, 족탕 등의 시설이 있다. 여기다 폭포탕, 바데풀, 노천풀은 30~60대, 키디, 레저풀은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 대중교통

- 부산종합버스터미널(노포동) 신평(통도사) 20분 40분 도착지에서 도보로 10분~ 20분
- 울산시외버스 터미널(삼산동) 신평(통도사) 5회(1일) 40분
- 양산시내버스(12번) 명륜동지하철역 신평(통도사) 10분 80분
- 양산시내버스(63번)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신평(통도사) 10분 40분
- 양산시내버스(67번) 호포지하철역 신평(통도사) 14회(1일) 80분

-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 통도사 I.C -> 통도환타지아
- 남해고속도로 -> 남양산 -> 경부고속도로 -> 통도사 I.C -> 통도환타지아

④ 친환경 생태연꽃과 함께하는 비실체험마을(진주 명석면)



○ 관광지: 용호정원

팔각정자와 연못, 연꽃이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다운 용호정원은 1922년 참봉 박헌경이 거둬드는 재해로 기근이 겹치자 현재 취로사업 형식으로 백성에게 집과 땅과 금전을 주어 중국 쓰촨성 동쪽에 있는 무산 수봉을 본떠 조성한 공원이다.

인공으로 12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가운데 8각의 정자를 세워 경치를 관망할 수 있게 하였다. 연못의 남쪽에는 용호정원의 승경을 노래한 풍류객들의 노래비가 있다

○ 체험종류

- 연꽃향기 가득한 백련꽃 사이로 카누타기 체험
- 연잎밥 무료시식 및 연음식 전시회
- 백련꽃차 만들기 체험 및 시음회
- 연잎비누 만들기 체험
- 도자기만들기(물레돌리기)

○ 주변관광지 : 청동기박물관(명석면 비실마을에서 10분거리)

수 고현 어촌 체험마을(경남 창원시)



■ 고현 어촌체험마을은...

청정해역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자랑인 고현어촌체험마을은 전국 70%에 해당하는 미더덕과 오만둥이의 주산지로서 대부분의 마을 주민이 어업에 종사한다.

2003년도에 행자부지정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산물 판매 홍보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고 제6회 우수어촌체험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고현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 (1) **통발체험**: 통발을 하루나 이틀 전에 미끼를 넣어서 바닷 속에 던져놓고 체험객이 직접 배를 타보면서 건져 올려 해산물을 시식할 수 있다.
- (2) **햇불체험**: 밤에 바다에 햇불을 들고나가 불을 바다에 비춰 가재와 게를 잡는 프로그램이다.
- (3) **먹거리체험**: 체험마을 앞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직접 잡아서 시식하는 체험이다.
- (4) **선상낚시체험**: 직접 미끼를 끼워 바지선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 낚시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 (5) **등대사진찍기**: 마을의 등대와 체험마을 앞 빨간 등대 두 개를 밤에 감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6) **갯벌체험**: 썰물로 인하여 드러난 갯벌에서 바지락 고동, 소라, 게 등을 잡는 체험이다.

■ 고현 어촌체험마을 특산물

1999년부터 미더덕이 양식품종으로 지정되어 일부 해역에 미더덕 양식면허를 인가해 줌으로써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더덕류의 양식생산은 고현마을에서도 점차 증가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양식품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마산지역에서 미더덕이 특산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껍질을 벗기고 된장찌개나 찜으로 요리하면 향긋한 향기와 함께 독특한 맛이 있어 예로부터 진해만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에서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 주변관광명소

기념물 제105호 공룡 발자국화석, 해양드라마세트장, 저도연륙교, 적석산, 양촌온천

■ 체험문의 및 오시는길

○ 문의: 055)271-8579

○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102-4(<http://gohyeon.seantour.org>)

3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힐링 관광지

① 갈모봉 삼림욕장(경남 고성군)



- 한국관광공사의 '5월의 가볼만한 곳(2014년)'에 선정된 갈모봉산림욕장은 70여ha의 임야에 편백, 삼나무 등이 심어져 있다. 건강에 유익한 '피톤치드'를 내뿜는 수령 30~50년생의 편백이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1.6km의 산책로를 비롯, 팔각정, 삼림욕대, 야외탁자, 쉼터 등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누구나 무료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 소재지 : 고성읍 이당리 산183번지
- 문의처 : 고성군청 녹지공원과(☎055-670-2673)

② 옥천사 템플스테이(경남 고성군)

- 옥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末寺)로 신라 문무왕 10년(670년)에 의상이 창건한 사찰이다. 대웅전 뒤에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옥천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옥천사에서 템플스테이는 체험형, 휴식형으로 진행되며 체험형의 경우에는 매달 날짜가 조금씩 다르므로 홈페이지의 안내공지를 참고하거나 사전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 소재지 :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 프로그램(정기)
 - 마음챙김 프로그램(체험형) : 다담, 명상, 별빛포행, 108배, 편백숲명상, 소원주만들기 등
 - 천년고찰의 자연속에서 평안한 휴식(휴식형) : 예불, 공양 외 나머지 시간 자유로이 휴식
- 프로그램(비정기, 사전확인) : 소원등만들기, 새해맞이, 트레킹 등
- 비용
 - 체험형 : 성인 5만원, 초중고 4만원
 - 휴식형 : 성인 4만원, 초중고 3만원
- 홈페이지 : <http://www.okcheonsa.or.kr/>
- 문의처 : 옥천사(☎055-672-6296)

③ 무더운 여름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창 힐링여행

여름에는 청정 웰빙 계곡에서 물놀이, 밤에는 별빛 아래 연극을 보는 색(色)다른 문화여행

경남 거창은 산이 높고 물이 맑아 빼어난 산수 풍광을 자랑하는 산수향(山水鄉)의 고장이며, 경상우도의 문향으로 곳곳에 즐비한 문화유산과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의 고장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명승 수송대는 야영장, 오토캠핑장과 물썰매 등 캠핑과 함께 연극공연을 볼 수 있어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밖에도 월성계곡, 금원산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국민여가캠핑장, 황산전통마을, 가조온천, 체험마을 등 무더운 여름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창힐링여행은 당신의 여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수송대(명승 제53호) 그곳에 가면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역으로 사신을 전별하던 곳으로 근심 수(愁憂)에 보낼 송(送)자를 써 수송대라 불렀으나 퇴계 이황선생이 빼어난 경치에 어울리지 않는다하여 수송대로 바꿀 것을 권하여 수송대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수송대에는 요수정, 관수루, 구연서원, 시인묵객들이 거북바위에 글을 새긴 구연암 등 선비문화와 정자문화를 감상 할 수 있다. 또한 여름에는 야영데크와 오토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밤이 되면 별과 함께 야외연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조인성, 송혜교)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수송대관리사무소(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예약) ssd.geochang.go.kr 문의전화 055-940-8530



수송대 구연암



수송대 물놀이



수송대 구연서원

한국의 아비뇽축제 거창국제연극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내 최대 야외연극축제로 매년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신문화 관광 상품으로 ‘한국의 아비뇽’ 축제로 불린다. ‘연극의 하늘, 사랑의 별들’이라는 슬로건으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거창 수송대 일원 야외극장에서 세계 각국 41개 단체가 찾아와 180회 공연을 화려하게 펼친다. 개막작은 인류불멸의 코드인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을 그리는 〈마리아 마리아〉 선보인다.

올 여름 색다르고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거창국제연극제를 적극 추천한다.



26회 포스터



25회 개막작 '100인의 햄릿'



별빛과 함께 연극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7호 황산전통한옥마을

황산전통한옥마을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 위치한 전통한옥마을로 수송대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다. 1950년 요수신권선생이 은거하면서 거창신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장관, 국회의원, 고시 등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 마을이다. 굽이진 돌담길과 옛 담장(등록문화재)을 거닐며 한옥마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7호'로 선정되었다. 현재 18가구가 전통한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고 고택에서 하룻밤 기(氣)를 받아 가면 훌륭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황산전통한옥마을 전경



옛담장



600년 안정좌 나무

천혜의 자연이 빚은 최고의 작품, 월성계곡

월성계곡은 남덕유산 삿갓 골 샘에서 발원되어 아름다운 바위벼랑을 끼고 굽이쳐 흘러 수송대 용암정까지 총 12km에 이른다. 특히 서출동류 물줄기(동쪽에서 뜬 해가 서쪽으로 질 때 까지 하루 종일 햇살을 받아 좋은 물길)와 함께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거창의 소금강으로 불린다. 신선이 바둑을 두었다는 사선대, 신라 장군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군바위, 그 아래 분설담 등이 한편의 작품처럼 펼쳐져 있고 그 밖에도 갈계 숲, 내계폭포, 빙기실계곡, 마학동 계곡 등 숨은 비경들이 가득하다. 최근에는 MBC 일밤 '아빠? 어디가?'에 소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월성계곡 강선대



월성계곡 분설담



내계폭포

금빛 원숭의 전설, 금원산 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금빛원숭이의 전설과 빼어난 자연환경이 만들어진 금원산 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은 암석원, 고산습지원 등 7개의 전시시설과 재배시설, 전망대, 숲 관찰 데크가 있다. 특히 전국에서 단일 암으로 제일 큰 문바위와 자연바위에 형성된 가섭암지마애삼존여래불상(보물 제530호)이 있다. 야영장과 방갈로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여름에는 숲속음악제, 겨울에는 얼음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방갈로, 데크 예약 www.greencamp.go.kr 문의전화 055-254-3971~6



금원산 생태수목원



가섭암지마애삼존여래불상&유안청폭포



금원산 숲속음악회

별과 달을 보며 가족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름휴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밤 하늘을 볼 수 있는 남덕유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거창 국민여가캠핑장이 최근에 오픈하였다. 통나무 복층구조로 지어져 가족과 즐기기엔 적당한 캐빈하우스 4동과, 방갈로 3동, 텐트야영을 즐길 수 있는 데크 14개를 갖추고 올 여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남덕유산 동쪽 자락의 월성천을 따라 형성된 길이 5.5km의 계곡인 월성계곡과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미래의 공간 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이 있는 체험형 과학관인 거창월성우주창의 과학관이 자리하고 있어 온가족이 새로운 여름피서를 즐길 수 있다.

www.gccamp.kr 전화 070-4618-3525



국민여가캠핑장 전경



국민여가캠핑장 방갈로



야영테크

명산 정기 받고 강알칼리 온천수로 힐링하는 가조온천여행

가조온천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도읍으로 정하고자 마음먹었던 곳’으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금 비둘기의 관을 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지세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거창군 가조면에 위치하고 있다. PH농도가 9.7로 전국최고의 강알칼리 온천수를 자랑하는 가조온천은 물이 매끄럽고 부드러워 산성화된 몸을 바꾸는 체질 개선효과가 뛰어나 아토피, 피부질환, 신경통, 미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 여름 피로와 땀을 강알칼리 온천수로 씻어낸 후 하룻밤 편히 쉬어가는 새로운 피서 법을 추천한다. 문의전화 백두산천지온천 055-941-0721



가조온천



노천탕



가조 전경

캠핑과 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농촌체험마을

거창은 대표적인 농산어촌지역이다. 청정한 자연과 더불어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들이 풍부하게 수확된다. 계절별로 나는 특산물 체험과 놀이체험, 생태체험,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마을이 10개가 있다. 특히 여름철 블랙베리따기, 감자캐기, 가마솥 밥짓기, 떡만들기 등 농촌체험이 가능하며, 캠핑, 숙박을 하면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홈페이지 www.farm.go.kr

1 개금약초마을



개금약초마을로 오세요 ~

- 사무장 : 안갑순 (010-3230-9655)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가곡면 개금길 92
- 홈페이지 : www.gckorea.kr
- 자세한 : (주)개금약초

2 순향거름담마을



아름다운 풍조습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순향거름담마을

- 사무장 : 정복영 (010-4189-1157)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통안면 통호길 3
- 홈페이지 : www.sungangdang.com
- 자세한 : (주)순향거름담

3 거거꽃사과마을



백설공주가 좋아하는 사과 마을입니다...

- 사무장 : 이자운 (010-3678-8216)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주상면 거거길 15-4
- 홈페이지 : www.goggyok.kr
- 자세한 : (주)고개마을

4 순향담은장마을



자연이 살아있는 순향담은 장마을로 오세요 ~

- 사무장 : 최문 (010-3644-1808)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성암길 40
- 홈페이지 : www.sungangdang.com
- 자세한 : (주)순향담은

5 달빛고운월성마을



고운 달빛 비추는 말하로온 마을, 흥내를 싣고버린 푸른 자연마을

- 사무장 : 정창호 (010-7444-7890)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물성로 1433-7
- 홈페이지 : cde.daum.net/wolseung
- 자세한 : (주)고개마을

6 순향마을



별 도강남들의 활기와 자취가 살아있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 순!

- 사무장 : 권현웅 (010-6501-9800)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순향로 78
- 홈페이지 : www.sungangdang.com
- 자세한 : (주)순향마을

7 빙기실마을



자연이 깃들여있는 빙기실 체험마을

- 사무장 : 강득영 (010-6958-1029)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빙기실 488
- 홈페이지 : www.binggisil.com
- 자세한 : (주)고개마을

8 하늘비만



꽃과 사람이 있는 마을 하늘비만마을로 오세요

- 사무장 : 이경관 (055-942-2880)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가곡면 도리길 8
- 홈페이지 : www.haneulbiman.com
- 자세한 : (주)하늘비만

9 황금원숭이마을



천복의 자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황금원숭이 마을로 오세요 ~

- 사무장 : 서미하 (010-4449-2077)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원안면 금장길 50-151
- 홈페이지 : cde.daum.net/wonsung
- 자세한 : (주)고개마을

10 가남정보화마을



자연과 전통체험이 고장 가남마을로 오세요

- 사무장 : 배동 (010-8181-4362)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자곡면 지산로 1242 (구 약갈초등학교)
- 홈페이지 : ganamjeongbom.org
- 자세한 : (주)고개마을

11 서면정보화마을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면마을로 오세요

- 사무장 : 김하숙 (010-7862-5745)
- 체험장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모곡길 22
- 홈페이지 : seomjeongbom.org
- 자세한 : (주)고개마을

④ 대한민국 힐링여행 1번지, 휴양관광지, 산청 동의보감촌



- 한방휴양·체험·놀이시설 갖춰, 국내관광·휴식처로 각광 -

답답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민국 힐링 여행 1번지 “동의보감촌” 그 곳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지리산 대자연 숲 속인 ‘동의보감촌’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혹은 혼자서 거닐다 보면 바쁜 일상생활에 빠져 현실에 억지로 맞춰 살아온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1일 개장된 “동의보감촌”은 지난 해 성공리에 개최된 ‘산청엑스포’의 식지 않은 열기 속에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동호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해외관광보다는 국내관광(휴가)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과 군의 관광 주간행사로 더욱 활기를 찾고 있다.

동의보감촌에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한방자연휴양림, 동의본가 3곳의 특별한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에서부터 볼거리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약초비빔밥, 약초 샄브샄브, 약선음식 등 계절별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먼저 산청엑스포의 주 무대였던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는 한의학박물관, 산청약초관, 한방 기 체험장, 한방 테마공원 등의 한방관련 휴양·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봄에는 맑은 물과 바람 그리고 약초향기를, 여름철에는 수영장과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을, 가을에는 동의보감촌 전체를 하얗게 수놓는 구절초를, 겨울에는 썰매장, 롤러슬라이드 등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는 한의학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체증 없이 숨 쉬고 걷는 것에서부터 밤하늘 빛나는 별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석경, 귀감석, 복석정, 동의전 등 백두대간의 신비로운 기 체험 스토리가 있는 ‘한방 기 체험’이 인기다. 이 곳에서 기운을 받으면 만사형통의 소망과 염원이 이루어진다고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있다.

동의보감촌 숲 속에 위치한 ‘한방자연휴양림’은 지리산 천왕봉의 끝자락인 왕산과 필봉산의 소나무, 자작나무, 야생화 등의 자생지로 유명하다. 이 곳은 ‘약초 향기에 먼저 취하는 곳’으로 당귀, 곶취, 산마늘, 구절초 군락지로 운치있는 풍광을 자랑한다.

한방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숲속휴양관, 야영장, 물놀이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춰, 가족 3대가 즐길 수 있는 힐링체험·피크닉이 가능하며, 기암괴석, 맑은 물, 생태탐방로, 허준 순례길은 힐링과 건강여행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이곳에는 눈높이에 맞는 다기능 복합형 휴양공간이 될 친환경 오토캠핑장과 산약초 체험단지, 향노화 체험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질녘 풍경이 아름다운 ‘동의본가’는 왕산과 필봉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한옥 숙박체험, 힐링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지난 엑스포 시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 곳에서는 기수련, 명상, 요가 등 심신치유와 침, 뜸, 마사지 등 종합 힐링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왕산과 필봉산에서 편안한 삼림욕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등산코스과 사시사철 약수가 뿜어져 나오는 약수터를 잇는 동의보감 둘레길은 산악자전거, 트래킹 코스로 전국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동의보감촌 아래 경호강변에서는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지정된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동의보감촌과 연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의보감촌은 2001년부터 왕산과 필봉산 아래 1,181천m² 부지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동의본가, 한방자연휴양림 등을 2015년까지 조성계획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지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곳이며,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가보고 싶은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의 명소에 선정된 “대한민국 힐링여행의 일번지”이다.

수 힐링여행~ 마금산 온천에 가다...

1. 마금산 온천은?

마금산 온천은 지역 이름을 따 북면온천이라고도 한다. 창원시 의창동에서 지방도 1045선을 따라 북쪽으로 13km지점, 자동차로 약20분 가량거리인 마금산(해발 200m)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온천은 아무리 퍼 올려도 마르지 않아 ‘신비의 샘’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온천수를 마시면 간 질환, 만성 변비, 당뇨병, 비만증, 위장병에 좋고 목욕을 하면 신경통, 관절염, 습진, 창상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격렬한 신경통과 류마티스, 잠수병 등에 특효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2. 마금산 온천의 역사는?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온천수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초 마금산 계곡에서 솟아난 약수가 각종질환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모여든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어 약수를 매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27년 당시 마산도립병원장으로 있던 일본인 도꾸나가씨가 간이욕탕 시설을 하여 요양장소로 이용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지역 주민인 손진일씨가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3. “신비의 샘” 마금산 온천수는?

수질	약알칼리성 식염천(무색, 무취, 무미, 투명)
수온	지하 350m에서 끌어올린 용출수 온도는 57℃로 지구 내 평균수온인 45℃보다 훨씬 높으며 탕내 온도는 46℃~47℃이다.
주요성분	나트륨, 철, 칼슘, 중탄산, 황산이온, 망간, 리튬 등 20여가지 천연미네랄 다량함유
효능	잠수병,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등에 효험

4. 주변 추천 건강음식은?



“북면 막걸리와 손두부”

창원의 풍요로운 자연과 후덕한 인심이 빚어낸 고유한 전통음식, 시원한 막걸리의 칼칼한 맛과 칼로리가 낮고 항암효과에 탁월한 따뜻한 손두부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맛집: 북면옛날손두부(055-299-5264), 민속두부마을(055-299-8945)

5. 주변 관광지는?

		
천주산	달천계곡 오토캠핑장	내곡 도깨비숲

숙 자연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해인사 소리길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걷기여행, 트래킹. 수많은 트래킹 코스마다

가지각색의 이름들이 있지만 경남 합천의 ‘해인사 소리길’처럼 이름만 들어도 그 길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소리(蘇利)길’은 우주만물이 소통하고 자연이 교감하는 생명의 소리라는 뜻이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걷다보면 풍경소리, 목탁소리, 세월 가는 소리가 어우러지며 어디선가 들리는 마음 속 깊은 곳의 소리 또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해인사 소리길은 대장경테마파크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 학사대까지 홍류동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다. 소리길은 편도코스이기 때문에 대장경테마파크나 해인사 중 한 곳을 선택해 트래킹을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트래킹 마지막에 조금 더 여유롭게 해인사를 둘러볼 수 있도록 대장경테마파크부터 시작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대장경테마파크를 시작점으로 보면 전원풍경이 가득한 마을 초입에서 멀리 가야산을 바라보며 트래킹을 시작하게 된다. 초입부터 물소리가 반겨주는 소리길은 마을 곳곳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있어 걷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고요한 시골 담벼락을 지나다 보면 담장 너머로 걸려 있는 옷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소리길이라는 이름 때문일까 이 풍경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소리길 오토캠핑장까지는 그늘이 없는 시골길을 걷게 되지만 시원하게 흘러가는 계곡물이 더위를 살짝 비켜가게 만든다. 연잎이 가득한 소리연못을 지나 무릉교를 지나면 녹음이 짙은 숲속길로 접어든다. 여기서부터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가득한 진짜 해인사 소리길이 시작되고 홍류동 계곡을 가까이 마주할 수 있다.

홍류동계곡은 해동 10승지 중 하나로 가을에는 계곡 전체가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나라에서 과거를 치러 관직을 얻었던 고운 최치원 선생이 기거하며 공부했던 학사당과 가야서당, 농산정이 홍류동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소리길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 청각적인 힐링이 풍부한 곳이지만 시각적으로도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길게 쪽 뻗어 있는 나무 데크를 걸으며 소나무 사이사이로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는 것도 운치가 있다. 기암괴석 사이로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와 어디서 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숲 속을 울리는 새소리가 귀를 가득 채운다.

소리길을 걷다 보면 계곡의 물소리가 가까웠다 멀어졌다는 반복한다. 길이 계곡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폭폭 찌는 무더위에 시원한 홍류동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나 유혹적으로 들린다. 시원한 계곡에 풍덩 몸을 적시고 싶지만 홍류동 계곡은 입수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낙심하기엔 이른다. 소리길에서 유일하게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칠성대로 소리길을 찾는 이들이 가장 반겨 하는 장소 중 하나다. 아름다운 홍류동 계곡을 소리와 눈은 물론 몸까지 느낄 수 있다.

소리길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는 다리와 나무데크, 사람들이 다듬어 놓은 어귀들을 몇 차례 지나다 보면 농산정이 나온다. 고운 최치원 선생이 수도하던 장소에 들어선 정자로 농산정에서 바라보이는 소리길의 풍경이 멋스럽다. 잘 자란 소나무들이 미끈하게 뻗어있고 크고 작은 기암괴석들이 절경을 이룬다.

농산정 계곡 도로 건너에는 학사당과 가야서당이 있다. 하늘로 쪽 뻗어 올라간 학사당의 돌계단 끝에 홍도문이 자리하고 있다. 그 문을 지나야 학사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

계곡을 따라 길상암에서 명진교를 거치면 홍류동 계곡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전망대처럼 널찍하게 조성해 놓은 데크로드에서 바라보이는 절벽과 소가 바로 낙화담이다. 소리길 전 구간이 어디에 시선을 두든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낙화담은 감탄이 절로 나는 곳이다.

소리길에는 무성한 숲과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외에도 곳곳에 의외의 즐거움이 숨어 있다. 소리길을 걷다 보면 짧지만 마음에 와 닿는 글들이 새겨져 있는 석판이 소리길 중간 중간에 놓여있다. 이 글들을 하나하나 찾아 읽어보며 걷는 것도 소리길을 걷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햇살이다. 길을 걷다 한숨 쉬어갈 때는 눈 앞의 계곡 다음에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자.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이 몽환적인 느낌을 선사할 테니. 소리길의 푸르름과 자연이 주는 다양한 소리들이 햇살과 어울려 더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한다. 중간중간 만나는 크고 작은 폭포들도 놓치지 말자.

해인사 소리길은 대장경테마파크에서 시작해 홍류동 매표소를 지나 성보박물관, 성철스님 사리탑, 일주문, 해인사, 학사대까지 7km로 도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총 다섯 구간으로 1구간이 2km로 가장 길고 4구간이 0.8km로 가장 짧다.

해인사 소리길은 차도에 인접해 있어 중간코스부터 트래킹을 시작할 수 있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적당한 구간을 걸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지 않고 완만한 코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트래킹을 즐길 수 있다.

해인사 소리길 트래킹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장경밥상이다.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 문화축전을 기념해 개발된 ‘대장경 밥상’은 합천군 지정을 받은 백운식당(055-932-7393)과 해인식당(055-933-1117)에서 맛볼 수 있다. 도토리 비빔밥, 채식나물밥상, 대장경한정식 등 스님들이 먹는 차림을 기본으로 했지만 어린이 입맛에 맞도록 소고기덮밥, 파프리카 볶음밥도 준비도 있다.

4 공연이 있는 여름 축제

1 제21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경남 거제)

	<div> <div></div> <div>행사기간</div> <div>2014년 7월 30일 ~ 8월 3일</div> </div>
	<div> <div></div> <div>행사일정</div> <div>※세부일정표 참조</div> </div>
	<div> <div></div> <div>장 소</div> <div>구조라와현해수욕장 등 거제시 일원</div> </div>
	<div> <div></div> <div>주최/주관</div> <div>거제시/MBC경남</div> </div>
	<div> <div></div> <div>담당부서</div> <div>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div> <div>639-4172 ~ 4173</div> </div>
	<div> <div></div> <div>홈페이지</div> <div>http://blog.naver.com/lee_works</div> </div>

● 축제소개

“바다로 세계로”는 전국 최대규모의 해양행사로 모터보트대회,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전국에어로빅대회, 핀수영대회 등 해양스포츠와 [MBC 가요베스트](#), [7080 콘서트](#) 그리고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5일간 진행됩니다.

			
사 진 설 명		여름 바다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세부일정표

구 분	행사명	일 시	장 소
해 양 스포츠	경남은행 배 국제 핀수영 대회	7.27(일) / 11:00	구조라 해수욕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배 전국 모터보트 대회	7.30(수) / 11:00	구조라 해수욕장
	대우조선해양 배 전국 에어로빅스 대회	7.31(목) ~ 8.1(금) / 11:00	구조라 해수욕장
	삼성중공업 배 세계여자슈퍼비치발리볼 대회	7.31(목) ~ 8.1(금) / 12:00	구조라 해수욕장
	전국 뷰티바디 챔피언 쉽	8.1(금) / 17:00	구조라 해수욕장
	하이트 배 전국 수상 오토바이대회	8.2(토) / 10:00	구조라 해수욕장
	거제시장 배 드래곤보트대회	8.3(일) / 10:00	구조라 해수욕장
EXCITING	구조라 익스트림 존	7.31(목) ~ 8.3(일) 10:00 ~ 17:00	구조라 해수욕장
	익사이팅 워터 파이트	8.2(토) 14:00	구조라 해수욕장
ENJOY	구조라 쿨 존	7.31(목) ~ 8.3(일) 10:00 ~ 17:00	구조라 해수욕장
	어린이 버블 풀	7.31(목) ~ 8.3(일) 10:00 ~ 17:00	구조라 해수욕장
	헤나 체험	7.31(목) ~ 8.3(일) 10:00 ~ 17:00	구조라 해수욕장
	카약 체험	7.31(목) ~ 8.3(일) 10:00 ~ 17:00	구조라 해수욕장
	한과 만들기	7.31(목) ~ 8.3(일) 10:00 ~ 17:00	구조라 해수욕장

	몽돌빵 시식회	7.31(목) ~ 8.3(일) 10:00 ~ 17:00	구조라 해수욕장
	맨손 고기잡이 체험	8.2(토) ~ 8.3(일) 14:00	구조라 해수욕장
	다대마을 갯벌 체험(유료)	8.2(토) ~ 8.3(일) 14:00	다대마을
블루 페스티벌	바다로 세계로 특집 가요베스트 “더 블루”	7.30(수) 19:00	거제종합운동장
	바다가 보이는 라디오	7.31(목) ~ 8.3(일) 12:00 ~ 14:00 / 15:00 ~ 16:00	와현 해수욕장
	7080 어쿠스틱 콘서트	7.31(목) 19:00	구조라 해수욕장
	7080 콘서트	8.2(토) 19:30	구조라 해수욕장
	불꽃 축제	8.2(토) 21:00	구조라 해수욕장
	Summer 댄스 페스티벌	8.3(일) 19:00	구조라 해수욕장

● 행사장 오시는 길

- 승용차 이용





○ 찾아오는 길

- 거가대교 ⇨ 송정IC ⇨ 장승포 ⇨ 구조라해수욕장
- 신가짜대교 ⇨ 국도대체우회도로 ⇨ 이주터널 ⇨ 장승포 ⇨ 구조라해수욕장

② 2014 사천 세계타악 축제



- 축제기간 : 2014.7.31(목) ~ 2014.8.3(일)
- 축제주기 : 매년(8월)
- 장 소 : 삼천포대교공원
- 축제주관 : (재)사천문화재단
- 사 업 비 : 500백만원
(국비50, 도비130, 시비320)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홈페이지 : www.sccf.or.kr

● 축제소개

<축제의 유래>

0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사천시의 “사천남양농악(전신 : 삼천포12차농악)”의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만들어졌으며, 타악을 모태로 한 세계 각국의 타악전통문화 공연단을 초청 공연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차별화, 특성화된 문화축제로서 국내 유일의 타악축제이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

<축제의 특색>

0 사천시는 한려수도의 청정바다와 와룡산, 항공산업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천혜의 복합 관광도시로서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야간 축제가 부족한 실정에서 만들어낸 밤의 타악 향연이며 세계 11개국 19개팀 100여 명의 타악공연팀이 4일간 해상무대에서 야간의 공연을 통하여 한여름밤의 타악 공연을 통하여 열기를 식히며 일반 축제와는 또다른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축제임.의전의 간소화를 위해 개막식에는 별도의 VIP소개 없이 개막행사 참여 프로그램으로 VIP가 무대위에서 북을 치는 “타고식”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였으며 프로그램 중 세계타악축제 한마당은 해외 및 국내 초청공연팀들의 “한국 전통예술과 세계타악의 만남”, “세계의 현대 타악 퍼포먼스의 만남”, “사천시민과 세계타악의 만남” 등 요일별 축제 공연의 주제를 선정하여 관람객들의 기호 및 기대심리에 부응하며 축제를 운영하며서 사천세계타악 축제는 차별화된 축제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사천시와 진주시 등 인근도시와 관광성수기인 여름철에 남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의 유명 타악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타악축제로 거듭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체험·참여)

<체험·참여 프로그램>

- 0 세계타악기 전시 및 체험 : 세계 20개국 300여 점의 타악기를 전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0 전통 국악기 제작 시연 및 체험 : 전통 국악기(장구 등) 제작 장인을 초청하여 현장에서 국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학습의 장을 제공함.
- 0 세계 민속놀이 체험 : 중국의 찰엔쯔, 필리핀의 티니클링, 인도네시아의 라리카유, 일본의 다루마오토시 등은 실제 외국 여행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민속놀이를 축제 기간 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함.

● 기대효과

- 0 타악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사천시가 세계적인 타악아티스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적인 타악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별화와 특성화된 축제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1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사천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문화상품 마케팅을 통한 한여름 밤의 특별한 축제로 자리잡고 있음.

● 주요 공연장면



● 행사장 안내도



● 행사장 오시는 길

<승용차>

0 대전통영간·남해고속도로 이용시 : 사천IC→사천공항→사남농공단지→용현사거리
→송포농공단지→실안해안도로→삼천포대교공원

※ 네비게이션 주소 : 사천시 사천대로 3 - 16(대방동)

<시외버스>

- 0 서울 : 05:50, 06:50, 07:50, 08:50, 09:50, 10:50, 11:50, 12:50, 13:50, 14:50,
15:50, 16:50, 17:50, 18:50, 20:20, 23:10(심야)
- 0 부산 : 06:20, 07:05, 07:50, 08:35, 09:20, 10:05, 10:50, 11:30, 12:10, 12:50,
13:30, 14:10, 14:50, 15:30, 16:10, 16:50, 17:30, 18:10, 18:50, 19:30,
20:10, 20:50
- 0 마산 : 06:40, 07:30, 09:20, 10:20, 11:00, 12:00, 13:00, 14:00, 15:00, 15:50,
17:00, 17:40, 18:20, 19:00, 19:40, 20:30, 20:50
- 0 대전 : 07:50, 08:30, 09:50, 10:30, 11:40, 13:25, 14:10, 14:50, 15:40, 18:00,
19:10, 20:00, 22:00

<항공>

- 0 사천 ⇒ 제주 : 15:55, 16:40 - 금,일요일
- 0 제주 ⇒ 사천 : 14:30, 15:15 - 금,일요일
- 0 사천 ⇒ 김포 : 08:30, 20:40 - 매일
- 0 김포 ⇒ 사천 : 07:00, 19:10 - 매일

<택시>

- 0 동지역 : 055-835-4000 · 5000 · 2222 · 1002 · 7000 · 3000 · 3333 · 1004
- 0 읍지역 : 055-852-3100 · 7000 · 4444 · 5555, 854-4600 · 3333, 853-0020 · 3553

③ 422주년 제53회 통영한산대첩축제



●	행사기간 2014년 8월 13일 ~ 8월 17일
●	행사일정 ※세부일정표 참조
●	장 소 병선마당 및 통제영,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
●	주최/주관 통영시/ (재)통영한산대첩기념사업회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650-4532
●	홈페이지 http://hansanf.org

● 축제소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한 공식축제로, 성웅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자랑스런 300년 통제영문화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매년 8월 실제 한산대첩일을 전후로 개최되고 있는 통영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임



사 진 설 명

한산대첩 출정식 및 재현 승전축하 시민대동제

제53회 『통영한산대첩축제』 세부일정

날 짜	행 사 명	시 간	장 소
13일(수) 임진일기 (壬辰日記)	제53회 통영한산대첩축제 고유제 봉행	11:00	통영충렬사
	어린이인형극 난중일기	14:00	병선마당
	삼도수군통제영 해군참모총장 주재 해군 작전회의	14:00	세병관
	통제영전통 24반 무예시연	14:00	
	삼도수군통제사 어린이군점 재현	15:00	
	삼도수군통제영 군점 및 통제사 행렬 재현	17:00	통제영~항남오거리~병선마당
	어린이인형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17:00	병선마당
	통제영전통무예 24반 무예시연	18:30	병선마당
	전통국악공연 세병관 달 밝은 밤에	19:00	세병관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공연	19:00	병선마당 특설무대
	제53회 통영한산대첩축제 개막식	20:00	
	개막공연 마당놀이 난중일기	20:30	
8월 14일(목) 계사일기 (癸巳日記)	한산대첩 바로알기 승전고를 울려라!	10:00	세병관
	어린이인형극 난중일기	14:00	병선마당
	통영한산대첩축제기념 난중일기 세미나	14:00	통영시립박물관
	통제영전통 24반 무예시연	14:00	세병관
	마당놀이 난중일기	15:00	
	어린이인형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17:00	병선마당
	통제영전통 24반 무예시연	18:30	병선마당
	전통국악공연 세병관 달 밝은 밤에	19:00	세병관
	영호남교류 명량대첩축제 초청 진도군립민속예술단	19:00	병선마당 특설무대
	한산대첩422주년기념 해군의장대시범 및 축하공연	20:00	
8월 15일(금) 갑오일기 (甲午日記)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우리의 꿈은 파도를 타고	11:00	병선마당
	어린이인형극 난중일기	14:00	통영시립박물관
	미국만화 <이순신>의 작가 ‘오리 콤파’와의 만남	14:00	
	통제영전통 24반 무예시연	14:00	세병관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기획공연	15:00	
	어린이인형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17:00	병선마당
	통제영전통 24반 무예시연	18:30	병선마당
	전통국악공연 세병관 달 밝은 밤에	19:00	세병관
8월 16일(토) 병신일기 (丙申日記)	경남도민예술단순화공연 조항조, 오정해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우리음악한마당	20:00	병선마당 특설무대
	한산대첩422주년기념 제7회 거북보트노젓기대회	09:00	병선마당 강구안
	해병대통영상륙작전 64주년 기념식 및 해병대의장대시범	11:00	병선마당 특설무대
	한산대첩422주년기념 한산대첩 출정식	11:30	산양읍 당포항
	어린이인형극 난중일기	14:00	병선마당
	통제영전통 24반 무예시연	14:00	세병관
	중요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공연	15:00	
	어린이인형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17:00	병선마당
	통영국제음악당 이자람판소리공연 ‘가르시아 마르케스 단편선’	17:00	통영국제음악당
	한산대첩422주년기념 한산대첩 재현	18:00	한산 앞바다
	자매도시 과천시 초청공연 오리춤공연	18:00	병선마당 특설무대
	전통국악공연 세병관 달 밝은 밤에	19:00	세병관
8월 17일(일) 정유일기 (丁酉日記)	해병대통영상륙작전 64주년 해병대축하공연	20:00	병선마당 특설무대
	승전축하주막한마당 시민대동제	20:00	이순신공원 주차장
	어린이인형극 난중일기	14:00	병선마당
	통제영전통 24반 무예시연	14:00	세병관
	마당놀이 난중일기	15:00	
	어린이인형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17:00	병선마당
	통영국제음악당 재즈콘서트 ‘Swing on the Edge’	17:00	통영국제음악당
	전통국악공연 세병관 달 밝은 밤에	19:00	세병관
	통영한산대첩축제기념 KBS축하음악회	19:30	병선마당 특설무대

● 행사장 오시는 길

- 승용차 이용

통영 오시는길 안내	
01 서울 SEOUL 4시간 소요	대전-진주-통영
02 대구 DAEGU 2시간 30분 소요	마산-통영
03 광주 GWANGJU 3시간 소요	순천-진주-통영
04 진주 JINJU 50분 소요	
05 부산 BUSAN 40분 소요	거가대교 경유
06 대전 DAEJEON 2시간 30분 소요	우주-함양-통영
 경부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④ 2014 황강 레포츠 축제

뜨거운 여름... 합천은 더욱 즐겁다!

- 합천 황강레포츠축제에서 즐기는 시원하고 색다른 여름 -



한낮의 후끈한 열기와 밤샘 월드컵 응원으로 몸과 마음이 피로한 요즘, 여름휴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여름휴가'란 단어에 혹자는 수려한 자연을 벗 삼아 신선놀음을 꿈꾸기도 하고 혹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레포츠를 떠올릴 것이다. 정적이거나 동적인 휴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경남 합천의 황강을 추천해주고 싶다.

합천댐에서 합천읍을 가로지르는 황강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지를 품고 있다. 황강변에 위치한 황강레포츠공원은 여름이 되면 활기찬 매력까지 더해지는데, 바로 '황강레포츠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축제는 여름을 더욱 뜨겁게 재미있게 보내려는 캠핑족과 레포츠 동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합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이다.

올해 7월 26일, 27일 양일간 진행되는 '2014 황강레포츠축제'는 은빛 백사장을 무대로 황강수중마라톤대회, 모래풋살대회, 리버발리볼대회와 맨손은어잡기, 황토한우 무료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6일 저녁에는 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전야제는 mbc <가요베스트>로 진행될 예정이니 가족, 연인끼리 황강변에서 캠핑을 즐기며 1박 2일로 황강레포츠축제를 즐겨 보는 것도 좋겠다.

2014 황강레포츠축제에서는 메인 이벤트로 마라톤 동호인들의 무한 사랑을 받는 제 19회 황강수중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마라톤'이라고 해서 한낮의 뜨거운 아스팔트를 달리는 마라톤을 생각하면 큰 오산.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수중마라톤 대회로 이색 레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매년 성황을 이루고 있다. 황강수중마라톤대회는 청년부, 장년부로 나뉘어 2km, 5km, 10km 코스를 선택, 황강1급수 맑은 물을 제대로 느끼며 달릴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황강레포츠축제로 뜨거운 여름 맛을 보았다면 합천의 또 다른 매력, 등골이 서늘해지는 여름밤을 함께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국내 최고의 시대물 세트장인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고스트파크 2014'도 함께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개장하는 호러축제는 감금병동, 드라큘라의 집, 공동묘지, 호러분장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